



| 2015년 제25호 |

중국의 제조강국전략 「중국제조 2025」

2015. 12

목 차

- I. 개요
- II. 주요내용
- III. 주요 추진현황
- IV. 시사점

I. 개요

□ 중국의 제조업은 국제지위가 대폭 향상하고, 세계 제조업의 제1 대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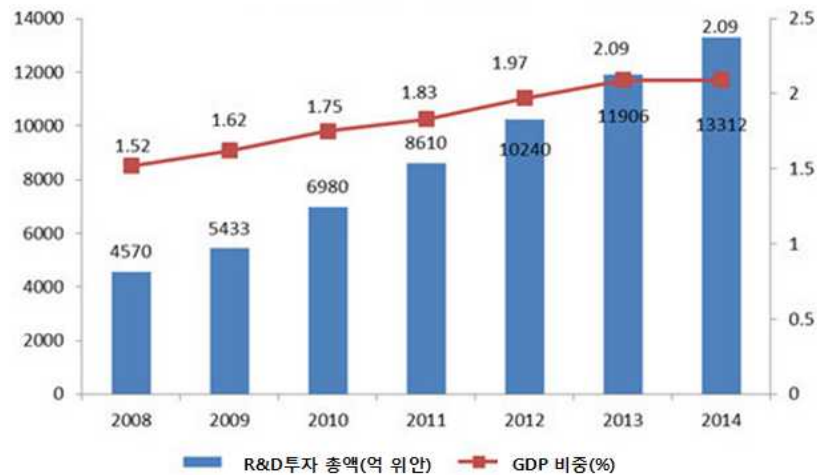
- 2014년 중국의 공업부가가치는 22.8조 위안, GDP 비중은 35.85%, 2013년 중국 제조업 산출의 세계적 비중은 20.8%로, 4년 연속 세계 제1 대국의 지위 유지
- 2014년 중국은 총 100개 기업이 미국 경제지인 Fortune에서 선정한 'Fortune Global 500'에 선정되어 2008년보다 65개 증가
 - 그중 제조업 기업이 56개(홍콩/마카오/대만 불포함)로, 2년 연속 글로벌 500대 기업 수가 미국(130개) 다음인 세계 2위



[그림 1] 2001~2012년 4개국의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곡선

□ 혁신주도형 전략의 유도로, 기업의 R&D투자는 급성장하여 자주혁신 능력이 제고되고, 일부 핵심기술은 세계 상위수준

- 2013년 기업의 R&D투자는 8,318억 위안으로, 2008년에 비해 2.7배 증가하고, 기업의 GDP 대비 R&D투자는 2008년의 0.61%에서 2013년의 0.8%로 증가
- 유인우주선, 달탐사 공정, 유인잠수선, 신규 지선항공기, 대형 액화 천연가스선(LNG), 고속 궤도교통 등 기술에서 획기적인 성과 창출



[그림 2] 2008~2014년간 전사회 R&D투자총액 및 비중

- 2014년 중국의 R&D투자는 1조 3,312억 위안이고, GDP 비중은 2.09%로, 2008년 4,616억 위안의 2.88배에 해당
- 환율에 따라 계산할 경우, 중국의 R&D투자규모는 세계 3위이고, GDP 대비 R&D투자는 신흥 개발도상국의 선두규모
- 지능형 제조, 고속철, 해양공정 등 첨단장비제조업 생산액의 장비제조업 비중은 10% 이상이며, 해양공정장비 수주량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9.5%

□ 이처럼 중국의 제조업 국제지위가 급부상하면서 신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이 국제산업분업구도 재편 중

- 미국은 '공업 인터넷', 독일은 '공업 4.0' 제시
- 중국은 제조강국전략을 실시하고 30년간의 노력을 통해 건국 100년이 될 무렵 세계 제조업 발전을 유도하는 제조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 제조강국전략의 첫 번째 10년 행동강령인 <중국제조 2025> 제시

[참고]

<2020년과 2025년 제조업의 주요지표>

유형	지 표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혁신 능력	규모이상 제조업 R&D투자 내부 지출액의 매출액 중 비중 (%)	0.88	0.95	1.26	1.68
	규모이상 제조업 1억 위안당 매출액의 유효발명특허 ¹ (건)	0.36	0.44	0.70	1.10
품질 수익	제조업 품질 경쟁력지수 ²	83.1	83.5	84.5	85.5
	제조업 부가가치율 향상	-	-	2015년 대비 2%p ↑	2015년 대비 4%p ↑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	-	-	7.5 (13차 5개년 연평균 증가율)	6.5 (14차 5개년 연평균 증가율)
정보 화·공 업화 융합	광대역 보급률 ³ (%)	37	50	70	82
	디지털화 연구개발 설계도구 보급률 ⁴ (%)	52	58	72	84
	핵심단계 수치제어화율 ⁵ (%)	27	33	50	64
그린 성장	규모이상 공업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 감소비중	-	-	2015년 대비18% ↓	2015년 대비 34%↓
	공업부가가치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비중	-	-	2015년 대비 22%↓	2015년 대비 40%↓
	공업부가가치당 용수량 감소비중	-	-	2015년 대비 23%↓	2015년 대비 41%↓
	공업 고형폐기물 종합이용률 (%)	62	65	73	79

1. 규모이상 제조업 1억 위안당 매출액의 유효발명특허 건수=규모이상 제조기업 유효발명특허 건수/규모이상 제조기업 매출액
2. 제조업 품질경쟁력지수란 중국 제조업 품질의 전반수준을 반영하는 경제기술 종합지표로, 품질수준과 발전능력의 2개 분야에서 총12개의 구체적 지표를 통해 계산
3. 광대역 보급률은 고정 광대역의 가정 보급률을 대표하며, 고정 광대역 가정 보급률=고정 광대역 가정 사용자 수/가정 가구 수
4. 디지털화 연구개발 설계도구 보급률=디지털화 연구개발 설계도구를 응용한 규모이상 기업 수/규모이상 기업 총수(관련 통계치는 3만 개의 기업을 상대로 함, 이하 같음)
5. 핵심단계 수치화율은 규모이상 공업기업의 핵심단계 수치화율의 평균치

II.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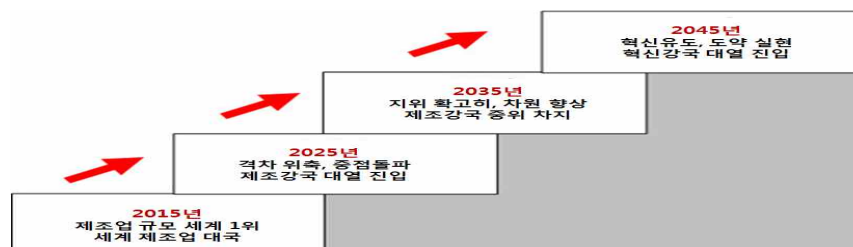
- 리커창 총리의 독일방문 중 중독 양국이 <중독협력 행동강요> 체결 후, '공업 4.0' 개념이 중국에서 회자되면서 (2014.10)
 - '공업 4.0', '지능형 제조'의 전략적 지위가 신속히 향상
 - <중국제조 2025>는 독일 '공업 4.0'의 영향을 받았으며, 핵심구상은 '공업 4.0'와 비슷하고, 주력방향은 모두 '지능형 제조'
- 중국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최초로 '중국제조 2025'를 제시하고, 5월 중순 국무원에서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여 제조강국전략을 본격 실시

1. 목표

- 국무원은 중국을 제조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고, 제조강국 건설 로드맵 제시 (2015.5.19.)

※ 2015년 정부업무보고는 '중국제조 2025'를 실시하여 지능형 제조를 주력방향으로, 제조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우위를 재구축할 것을 제시 (2015.3.5.)

- 10년을 한 단계로 3단계 전략적 목표 제시
 - 제1단계는 2025년까지 제조강국 대열에 진입
 - 제2단계는 2035년까지 전체 제조업을 세계 제조강국 대열의 중등수준으로 향상
 - 제3단계는 신중국 성립 백주년인 2049년까지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종합실력을 세계 제조강국의 상위에 진입



- 9개 전략적 임무와 10대 중점분야 및 5대 중대공정 확정

2. 전략적 임무와 중점분야

□ 제조강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개 전략적 임무

9개 전략적 임무	
① 국가 제조업 혁신능력 제고	⑥ 중점분야 획기적 성과창출 본격화
② 정보화와 공업화 심층융합 추진	⑦ 제조업 구조조정 심층 추진
③ 공업기반능력 강화	⑧ 서비스형 제조와 생산성 서비스업 적극 발전
④ 품질 브랜드 육성 강화	⑨ 제조업의 국제화 발전수준 향상
⑤ 녹색제조 전면보급	

□ 10대 전략적 중점분야

10대 중점분야	주요 개발분야
1. 차세대 IT산업	1. 집적회로 및 전용장비 2. 정보통신장비 3. 운영시스템 및 공업 소프트웨어
2. 고급 수치제어선반(CNC), 로봇	1. 수치제어선반·기초제조장비·통합제조시스템 2. 적층제조(3D프린팅) 3. 공업로봇, 특수로봇, 서비스로봇
3. 항공우주장비	1. 대형항공기, 와이드-바디(widebody) 여객기 2. 중형 헬기, 터보프롭·터보팬엔진 3. 차세대 로켓, 중형 탑재체 4. 유인우주선공정, 달탐사공정
4.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1. 심해정거장, 호화 크루즈 2. 액화천연가스선
5. 궤도교통첨단장비	1. 차세대 지능형 궤도교통장비 2. 세계 선두 현대적 궤도교통산업체계
6.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자동차	1.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2. 전지, 모터, 고효율 내연기관
7. 전력장비	1. 수력발전기, 원자로, 중형 가스터빈 2.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장비
8. 농업용 기계장비	1. 첨단 농업용 기계장비 2. 트랙터, 복식 작업공구, 대형 콤팩트
9. 신소재	1. 특수금속 기능소재, 고성능 구조소재 2.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 무기비금속소재 3. 선진 복합소재, 초전도·나노소재, 그래핀
10.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1. 혁신 중의약 및 맞춤형 치료약물 2. 의료용 로봇, 영상장비 3. 웨어러블, 원격진료 등 모바일 의료제품 4. 바이오 3D프린팅, 유도다능성 줄기세포

□ 5대 중대공정

5대 공정	주요내용
① 제조업 혁신센터 (공업기술연구기지) 건설공정	- 차세대 IT기술, 지능형 제조, 적층제조, 신소재, 바이오의약 등의 중대한 수요에 대응해 제조업혁신센터(공업기술연구기지) 설립 - 산업 기초·공통성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 산업화, 인재양성 중점추진 - 제조업 혁신센터 선정, 평가, 관리 표준과 절차를 제정 및 보완 ▷ 2020년까지 15개의 제조업혁신센터(공업기술연구기지) 설립 ▷ 2025년까지 40개의 제조업혁신센터(공업기술연구기지) 설립
② 지능형 제조공정	- 차세대 IT기술과 제조장비 통합혁신 및 공정응용 실시 - 산학연관 공동연구 지원 - 중점분야 스마트공장/디지털화 작업장 건설 - 프로세스 제조, 분산 제조, 지능형 장비와 제품, 신규업종모델, 지능화 관리, 지능화 서비스 등의 시범과 응용보급 분류실시 - 지능형 제조 표준체계와 정보보안체계 구축, 지능형 제조 네트워크 시스템 플랫폼 구축 ▷ 2020년까지 제조업 중점분야 지능화 수준 향상, 시범프로젝트 운영비 30% 절감, 제품 생산주기 30% 단축, 불량품율 30% 감소 ▷ 2025년까지 제조업 중점분야 지능화 실현, 시범프로젝트 운영비 50% 감소, 제품 생산주기 50% 단축, 불량품율 50% 감소
③ 공업기반 강화공정	- 장려와 위험보상 메커니즘 구축 - 기반부품, 선진기반공법, 핵심기반소재 응용 지원 - 핵심기반소재, 핵심기반부품의 공정화와 산업화 핵심문제 해결 - 4개 기반(소재·부품·공정·산업기술) 연구센터 설립 ▷ 2020년까지 40%의 핵심기반부품, 핵심기반소재 자주적 보장 실현, 우주장비, 통신장비, 발전장비, 궤도교통장비 등의 수요에 대응해 핵심 기반부품과 핵심기반소재 첨단제조공법 보급응용 ▷ 2020년까지 70%의 핵심기반부품, 핵심기반소재 자주적 보장 실현, 완비된 산업기술 기반서비스체계 구축
④ 녹색제조공정	- 청정생산, 순환이용 등 전문프로젝트 기술 개선 - 중점지역, 유역, 업종 청정생산 수준향상 계획 실시 - 대기, 물, 토양 오염원 방지 전문프로젝트 실시 - 녹색제품, 녹색공장, 녹색단지, 녹색기업 표준체계 제정, 녹색평가 실시 ▷ 2020년까지 1,000개의 녹색시범공장과 100개의 녹색시범단지 구축, 중점업종 주요오염물 배출비중 20% 감소 ▷ 2025년까지 제조업의 그린성장과 주요제품의 소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녹색제조체계 구축
⑤ 첨단장비 혁신공정	- 대형항공기, 항공엔진 및 가스터빈, 민간우주, 지능형 그린 열차, 대체에너지자동차,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스마트 그리드 관련 장비, 고급 수치제어선반, 원자력장비, 첨단진료설비 등 혁신과 산업화 전문프로젝트와 중대공정 실시 - 일부 대표성 중점제품과 중대장비 개방 ▷ 2020년까지 위에서 기술한 분야 독자 연구개발 및 응용 실현 ▷ 2025년까지 지적재산권 보유 첨단장비 시장점유율 대폭 향상, 핵심기술의 대외 의존도 급감, 주요분야 장비는 세계 선두수준으로 향상

3. 기술 로드맵

□ <중국제조 2025>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제조강국건설 전략자문위원회는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 기술로드맵(2015년)」 발표 (2015.9.29.)

- (목적) 사회자원 집결을 유도하고, 비교우위와 전략적 산업의 급속한 발전 촉진
- (주요내용) IT산업,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중점분야에서 23개 중점방향 제시
- 향후 기업의 정책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시장자본의 관계 분야 진입 지원, 10대 분야와 제조업의 전면적 업그레이드 촉진

10대 분야	23개 중점방향
1. 차세대 IT산업	1. 집적회로 및 전용장비 2. 정보통신장비 3. 운행시스템 및 공업 소프트웨어 4. 지능형 제조 핵심정보장비
2. 고급 수치제어선반(CNC), 로봇	1. 고급 수치제어선반·기초제조장비 2. 로봇
3. 항공우주장비	1. 대형항공기 2. 항공엔진 3. 항공기 탑재설비 및 시스템 4. 우주장비
4.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1. 해양공정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5. 궤도교통첨단장비	1. 첨단궤도교통장비
6.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자동차	1. 에너지절약 자동차 2. 대체에너지 자동차 3. 스마트 자동차
7. 전력장비	1. 발전장비 2. 송변전장비
8. 농업용 장비	1. 농업용 장비
9. 신소재	1. 첨단기초소재 2. 전략적 핵심소재 3. 프런티어 신소재
10.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1. 바이오의약 2. 고성능 의료기기

Ⅲ. 주요 추진현황

□ <중국제조 2025>는 제조강국전략의 첫 번째 10년 행동강령, 공업정보화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공정원 등 부서 및 기관과 공동 제정

- 국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업정보화부는 150명의 원사 및 전문가를 동원해 30년간 산업 전략적 구상을 1년반에 걸쳐 제정
- 최근 주요국에서 제조혁신 전략을 실시하고, 중국 산업의 발전이 감속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5년 단기계획을 10년이라는 중장기 계획기간으로 연장
 - 독일의 '공업 4.0'을 벤치마킹한 중국 버전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새로운 산업혁명 기회 선점, 선진국 추적 등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 확보
 - 제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13차 5개년('16-'20), 14차 5개년('21-'25) 기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

□ <중국제조 2025>의 전략적 임무와 중점은 공업 기반능력 강화

- 중국은 제조대국이나 제조강국이 아니며, 첨가와 저수준의 제조대국으로 인정받고 있음
 - 이를 위해 공업정보화부는 '소재·부품·공정·산업기술' 등 4개 기반(四基)이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4개 기반을 강화하기로 결정
 - 공업정보화부는 중국의 공업강국으로의 매진을 유도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해 공업기반강화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 예정 발표 (2014.6.30.)
- 공업정보화부는 제조강국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공업기반강화 전문프로젝트 행동 실시방안> 발표 (2015.3.6)
 - 2013년부터 실시한 공업기반강화 전문프로젝트 행동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현지 산업발전의 실제와 결부해 핵심기반소재, 핵심기반부품, 선진기반기술과 산업기술기반 등 공업기반능력을 제고하여 공업구조 고도화를 가속화하기로 결정

□ <중국제조 2025>는 '1+X' 계획체계 적용, 그 중 'X'는 10개 분야 포함 (2015.8.7.)

- (10개 분야) 국가 기술혁신 시범기업과 기업기술센터 설립, 중점분야에서 혁신설계시범 실시, 과학기술 성과전환과 산업화 촉진 지도의견 제정 등
 - 10개 분야는 각각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등 많은 부처 동참
- 정부자금을 시드머니로 사회자본을 유치하여 혁신능력 육성, 혁신체계 구축과 과학기술성과 산업화를 진행하는 것은 부처 분업의 이슈
 - 재정부는 이미 일부 핵심분야 프로젝트에 1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지원 제공

분야	주요내용
핵심기술 연구 강화	- 국가 기술혁신 시범기업과 기업기술센터 설립 추진 - 기업의 국가과학기술계획 정책결정과 실시 참여 유도 - 제조업 중점분야 기술혁신 로드맵 청서를 정기적으로 제정 및 발표 - 국가과학기술중대전문프로젝트 조속히 실시 ▷ 동 사업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주도로 일부 산업혁신연맹 발족 ▷ 전반 산업 경쟁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추진력이 강한 핵심기술 연구
혁신설계능력 제고	- 중점분야에서 혁신설계 시범 실시 -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핵심설계도구 소프트웨어 개발 - 목표는 혁신설계 생태계 구축, 국제영향력 있는 혁신설계그룹 조성 ▷ 동 사업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교육부, 과학기술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지식산권국이 참여 ▷ 국가 공업설계 관련 상을 개설하여 특수 공헌을 한 기관과 개인 장려
과학기술성과 산업화	- 성과전환과 산업화 촉진 지도의견 연구, 성과 정보발표와 교류플랫폼 구축 - 중국의 기술거래시장 구축, 전반 기술교류와 산업화체계 구축을 통해 연구형/혁신형 기업과 기관을 위해 서비스 ▷ 동 사업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재정부, 국가지식산권국과 국방과학기술공업국이 참여
제조업 혁신체계 구축 강화	- 공공서비스플랫폼과 공정데이터센터 설립, 혁신망 구축 - 위험분담과 이익공유에서 효과적 체제 구축, 일부 제조업분야 혁신연구 기지 구축 - 민간자본과 정부협동을 통해 산학연 전환에 이로운 산업혁신연맹 발족 - 제조업공정데이터센터 설립 ▷ 동 사업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도로 재정부 참여

□ <중국제조 2025> 지능형 공업혁신연맹 발족 (2015.5.20.)

- (연맹 회원) 선양선반, 선저우디지털(神州數碼), 칭화전자상거래기술공정 실험실, 공업정보화부 전자공업표준화연구원, 시안교통대학, 통지대학, 상하이이공대학, 쉬창위안둥(許昌遠東)전동축회사, 상양(襄陽)자동차베어링회사

- 국무원은 제조강국전략을 본격 실시하기 위해 <국가 제조강국 건설 영도소조 설립 관련 통지>를 발표 (2015.6.24.)
 - (기능) 국가 제조강국 건설 제반 사업을 책임지고, 제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획, 정책, 공정, 전문프로젝트와 사업배정을 심의
 - 영도소조 사무실은 공업정보화부에 개설하였으며, 팀장(马凯)은 국무원 마카이 부총리
-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 신개념 지능형 인터넷 자동차와 관련해 시범을 실시하기로 결정 (2015.9.29.)
 -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2015년 지능형 제조 46개 시범프로젝트 명단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지능형 인터넷 자동차시범구 사업은 상하이시에서 실시할 예정 (2015.7)
- 중공중앙 18기 5중전회에서 통과된 13차 5개년 발전계획 제정 건의에서 제시한 10대 산업은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 10대 중점분야와 일치 (2015.10.29.)
 - 건의에서는 지능형 제조공정을 실시하고, 신형 제조체계를 구축하며,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시
 - 또한 네트워크 경제공간을 확대하고, 데이터자원 개방공유를 추진하며, 국가빅데이터전략을 실시하고, 차세대 인터넷을 선행 배정할 것을 제시, 이는 중국이 최초로 제시한 국가빅데이터전략
- 공업신식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3개 부처는 <고에너지소모 산업 에너지효과 '선두자'제도 시행세칙> 발표 (2015.11.25.)
 - (목적) <중국제조 2025>를 구체화하고, 공업의 그린성장과 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촉진하며, 에너지 이용률 향상
- <중국제조 2025> 서비스 능력과 경제사회 발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부는 <고등직업교육 혁신발전 행동계획(2015-2018년)> 발표(2015.10.21.)
 - (목표) 고등직업교육 실력 제고, 인재양성 구조 합리화, 품질 향상, 고등교육 구조 고도화 성과 가시화, 현대적 직업교육체계 개선 추진
 - (주요임무) 우수한 교육자원 확대, 연구기관과 대학의 학교운영활력 증강, 기술기능 축적 강화, 품질보장 메커니즘 개선

□ <중국제조 2025>의 5대 공정 실시방안 작성사업 이미 착수

- (제조업혁신센터 건설공정) 산업연맹 등 신규모델·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시장화 운영을 통해 공통성 핵심기술 연구개발 강화, 올해 한두 개 시범 실시 예정
- (공업기반강화공정) 4개 기반(소재·부품·공정·산업기술)은 중국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제조업혁신센터 설립공정을 통해 실현, 재정에서 7억 위안의 자금을 지원하여 플랫폼 구축에 주로 활용 예정
- (지능형 제조공정) ① 지능형 장치와 제품의 산업화는 새로운 대외의존의 형성을 방지, ② 디지털화 작업장, 스마트공장 등 지능형 제조는 표준 통일과 체계 구축 등의 두 가지 문제 해결 필요
- (녹색제조공정) 우수한 적용기술 보급시범을 통해 실현
- (첨단장비혁신공정) 공업정보화부에서 중국공정원과 함께 2년마다 10대분야 혁신발전 녹색(green paper)를 제정하여 선진 기술 및 실현경로 소개

※ 5대 공정은 즉각 구체적 프로젝트를 설정, 비축프로젝트도 심사를 가속화할 전망

IV. 시사점

- 최근 세계 각국에서 중국제품(Made by China)이 급부상하면서 한국제품(Made by Korea) 지위가 점차 밀리고 있음
 - 한중 양국의 기술수준 격차가 좁혀지면서 한국 제조업은 위기에 직면
- <중국제조 2025>에서 제시한 제조업 지원방안은 한국정부가 제시한 산업 발전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양국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
 - 양국이 제시한 제조업 발전전략은 ICT기술의 제조업 운용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양국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산업도 비슷한 점이 많음
 - 한국이 지원하려는 지능형 융합제품과 지능형 부품 등은 중국의 10대 전략적 산업과 일맥상통
 - 중국은 저렴한 생산비에 기반한 경쟁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향후 기술과 제품품질 향상을 더욱 중시할 전망이어서 양국의 경쟁 구조는 질적인 경쟁으로 전환할 전망
- 중국은 기초연구분야에서 비교우위가 뚜렷하지만, 신제품 개발 등 산업기술에서는 한국이 비교우위 확보
 - 한국은 기술융합을 통해 참신한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 필요
 - 중국은 제조방식 혁신을 진행하기 위해 전략적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설비와 부품이 대량 소요
 - 이에 한국은 주안점을 두어 중국시장 적극 진출 필요
- 리커창 총리의 방한기간인 2015년 10월 30일 한중 양국은 '중국제조 2025'와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발전전략을 연계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 향후 양국의 상생협력을 통한 제조강국 실현의 공동 노력 필요

자료:

1. 新工業革命背景下的“中國制造2025”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5-08/26/c_128168739.htm

2. 李克強訪韓力促兩國發展戰略對接

<http://www.chinanews.com/gn/2015/10-30/7596823.shtml>

3.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5/19/content_9784.htm

<http://scitech.people.com.cn/n/2015/0520/c1007-27027695.html>

http://news.xinhuanet.com/2015-05/19/c_1115333559.htm

<http://www.chinaequip.gov.cn/ztchnew/2015qgzl/index.htm>

<http://scitech.people.com.cn/n/2015/0520/c1007-27027695.html> 등